

“첫 예배 설교 주제...”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모든 현실적 갈등이 해소 될줄 믿는다. 그러나 교회는 항상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 교회는 항상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와 죄악된 세상 사이에서, 또한 다가올 복스러운 세계와 현재의 악한 시대의 사이의 긴장 속에 묻혀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속에 있으며... 지금 세상적인 현상이 되어버렸다. 오늘날 교회는 정교한 조직과 기득권을 지닌 하나의 세상적 기구가 되었다.

오늘날 교회가 제거해 버린 것은 초대교회가 가졌던 종말의 임박성에 대한 인식이다. 교회가 종말론적 성격을 본질적으로 바르게 인식하고 사는 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교회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지키고 나가게 될 것이다.

오늘 미래의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5월 3일 첫 예배의 설교 말씀을 위해서 말씀묵상과 현실적 고민을 거듭했다. 그리고 어느정도 발견하고 깨달은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선포하지않는 잃어버린 종말의 임박성의 인식이 절대로 필요 하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 하려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초대 교회 성도들이 간진했던 교귀한 신앙을 회복 하려느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적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셔만옥스 한인교회' 의 정체성...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는 시리즈 설교가 될 것 같다.

나의 첫번째 설교 시리즈 주제로 정한 '하나님 나라와 현실적 교회와의 관계' 를 묵상하고 준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 다양하게 표현되며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표현에 의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발생 했는데...

'본 하르낙' 같은 학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정신으로 이해 했다. 그는 하나님 나라란 인간

의 영혼속에 들어와서 그 영혼을 주장하는 하나의 내적인 힘으로만 이해 했다.

반면에 어거스틴은 하나님 나라를 교회와 동일시 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들고 세상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견해를 받아 들이고있다.

또 다른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의 구원이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보지 않고 현재의 사회적 문제로 보려 했다는 점이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역적인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가야할 어떤 미래의 영역으로도 성경은 가르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나라' 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 할때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 나라 왕의 권세요, 주권, 통치, 다스림 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의 기본적 이해는 사람안의 정신 세계나 마음, 또한 어떤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권세가 있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 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영역은 하늘과 땅... 더 나아가서는 온 우주 전체가 되는 것이다.

오늘 재차 깨달은 바를 정리해 보면서 나의 고민은 이런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에대한 성경의 다양한 표현을 좀더 쉽고 감동 있게 전달해야하는 고민이 시작됐다.

첫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정할지 마가복음에서 정할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내일은 그동안 6 개월을 쉬면서 새로운 교회의 첫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매 주일 예배를 드리러 다녔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잔맥아더 목사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듣는다.

잔맥아더 목사는 나와는 좀 다른 성경적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이런 근본적 성경적 견해를 듣는 것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좋은 설교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아울러 말하고 싶다.

[최사무엘목사 목회칼럼]

〈저작권은 셔만옥스 한인교회 Copyright 무단복제 배부 금합니다〉